

# 침 맛고 약도 받고 “고맙지유”

## 불자약사보리회 정기 봉사활동 하던 날

5월 28일 충북 진천의 작은 절 옹화사(주지 무위)에서는 아침부터 웃음꽃이 피어났다.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경숙) 회원 30여명이 잔병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투약을 하기 위해 옹화사를 찾았기 때문이다.

“다 똑같지 뭐~. 촌 노인들 중에 무릎하고 허리 성한 사람이 있나?”

“그렇지유.”

아침 일찍 집을 나서 1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옹화사까지 찾아온 정운분(65)·이연순(78)·배정남(70) 할머니. 며칠 전 동네 이장이 무료진료에 약까지 준다는 말을 해줘 서둘러 나왔다고 한다. 정운분 할머니는 “이런 날이 아니면 약



수지침 봉사팀이 진천 주민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있다.

## 충북 진천 옹화사엔 아침부터 웃음꽃 “이런 날 아니면 약 먹기도 쉽지 않아” 2000여명 분 준비... “한번 더 왔으면”

먹는 것도 쉽지 않아 나왔어”라며 일주일치 약을 받고 수지침까지 맞았다.

진천에서 군의원 선거에 나선 친구를 돕다 옹화사에 온 양명전(62·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씨는 “다리가 아파서 짐을 맞았다”며 “평소에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사람까지 찾아와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선생님들께 절이라도 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한다.

부인과 함께 온 박승희(35)씨. 평소 협압이 높아 약을 먹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옹화사에 왔다. 병세를 들은 문동길 박사(강북동산의원 내과 전문의)는 “술과 담배부터 끊어야 완치될 수 있다”며 박씨를 호되게 다그쳤다. 문 박사는 그러면서 “가장 건강해야 가정이 평안하다”며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가톨릭 신자이지만 부인인 김영옥 약사를 따라 진료에 동참한 이만선 박사는 신부인과 진료에 여념이 없다.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과 부처님 모두의 공통적인 가르침 아니겠나?”며 “‘사랑’과 ‘자비’는 결국은 같은 말”이라며 차례차례 상담을 이어갔다. 이만선·김영옥 부부는 현장에서 은퇴하고 불교와 가톨릭을 가리지 않고 봉사원장에는 어디든 달려가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수지침을 놓던 김우영씨도 “미력이나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간단한 수지침에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기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 불자약사보리회의 봉사활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까지 계속됐다. 이날 약을 받고 수지침을 맞은 사람은 모두 400여명. 작은 병이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날이었다.

불자약사보리회 류남영 총무는 “2000명분의 약품을 준비했는데 능변기여서인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 아쉽다”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옹화사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옹화사 주지 무위 스님도 “선자가 겹치는 바람에 홍보를 많이 못했다”면서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진천까지 온

불자약사보리회가 고맙기만 하다”며 마음을 전했다. 지난 98년 창립된 이후 9년째 전국을 돌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약사보리회는 지금까지 90여만명에게 무료투약을 진행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소외지역은 물론 노숙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투약을 계속하고 있으며 티베트 망명정부에도 매년 3000명분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다.

활동 10년을 맞는 내년에는 100만명 무료투약 목표를 달성하고 내년 8월에는 그동안 불자약사보리회를 도와준 후원자들과 소외계층을 초청해 조촐한 회향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자약사보리회 창립 당시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나창자 명예회장은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가르침을 차근 차근 실천하는 것이 회원들의 목표”라며 “일과 신행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진천군 내에 있는 절자사를 참배하며 신심을 다진 불자약사보리회원들은 옹화사 석불입상 부처님의 잔잔한 미소와 같은 법향(法香)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며 다음 봉사활동을 기약했다.

글·사진/진천 옹화사·유철주 기자

## 교정인불자련, 동화사서 하계수련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변동윤, 이하 교정인불자련)는 6월 10-11일 대구 동화사에서 제10회 하계수련회를 실시한다.

교정인 불자와 가족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히 △미정림지회 조직화 방안 △수용자 포교 및 교화 기법 △이웃종교 교화위원회와 유기적 연대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한 대화마당도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정인불자련 류성현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신심 고취는

물론 교정인불자련연합회 조직의 강화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2611-8100

## 공불련, 10·11일 해인사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운갑·관세청장)는 6월 10-11일 합천 해인사에서 제6차 합동수계법회 및 제13차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공무원불자와 가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수계법회는 해인총림 율원 울주 종진 스님을 계사로 진행되며, 합동수계법회 외에도 보경당 비로자나부처님

진건과 철야정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02)739-1080

## 불이회 ‘위빠사나 수행의...’ 법담회

서울대 교수불자들의 모임인 불이회(회장 임승빈)는 6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에프와트 룸에서 제16차 법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담회에서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가 ‘정신과 의사가 경험한 위빠사나 수행: 위빠사나 수행의 정신치료적 유용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02)880-1262

## 일터가 도량입니다

## “환자들에게 불법 전할때 가장 행복”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구병수 교수

“꼭 만나야 하나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일터를 도량삼아 수행하고 정진하는 불자를 찾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구병수(44·효암) 교수는 다소 거친 경상도 말투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선배들이 많은데 저를 만나신다고 하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겸연쩍어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찾은 구 교수의 진료실은 “도량이 따로 없으며 바로 이곳이 수행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가지런히 정돈된 책상에 올려진 <금강경>만으로도 구 교수의 평소 수행생활이 어떠한지 짐작이 될 정도.

있는 여려사를 찾아 새벽예불을 올린다. 구 교수는 “하루라도 <금강경>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환자들을 대하기가 힘들다”며 “매일 식사를 해야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한다.

“내가 행복해야 환자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두통, 화병, 우울증 등을 겪는 환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평소에 이렇게 수행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병원 내에 퍼지면서 구 교수는 자연스럽게 ‘연우회’ 부회장을 맡게 됐다. 연우회는 올해 1월 단원병원으로서는 최대 규모인 400여명의 직



구병수 교수가 진료에 앞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다.

부산 범어사 사하촌에서 나고 자라면서 접한 스님들이 바로 이웃사촌이자 친구였던 구 교수는 “같이 지낸 동지스님들이 이제는 범어사 말사 주지 스님을 맡고 있다”며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한다.

이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단양 구인사에서 몇 개월을 보내고 또 동국대 한의대에 입학하면서 불교는 바로 생활의 일부가 됐다. 대학 졸업 후 동국한방병원과 강남한방병원 근무에 이어 일산불교한방병원이 문을 열면서 불자 한의사로서의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평촌에 살고 있는 부인·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구 교수는 “그나마 혼자서의 생활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불교에 있다”고 한다. 진료 시작 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심신이 지칠 때면 인근에

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된 불자회다. 구 교수는 이와 함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일도 함께 보고 있다. 병원 내에서는 교육부장으로 후배 한의사들을 지도하고 또 3주에 한번씩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시간은 금방 흘러간다.

“연우회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돼 매월 첫째 월요일 새벽법회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정기법회 외에 아직 눈에 띄는 활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6월 4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진행하는 첫 사찰순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매일 10건 이상의 일정이 적혀있는 다이어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구 교수는 오늘도 진료를 없는 시간을 이용해 연우회원들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옮긴다. 글·사진/일산·유철주 기자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점 을 받 쳐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께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

#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쪼다가 남겨놓은 간 이야기들. 헛간 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방치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9.000원 /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 '여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점 을 받 쳐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께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